

김정일 권력 집단의 응집력과 내부 갈등

고유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머리말

사 회주의권 붕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을 통치해왔던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실권을 장악한 김정일 중심의 북한 지도부는 심각한 경제난과 이에 따른 체제 이완 현상 등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외부 세계로부터 식량을 '구걸'하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굶어죽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김정일 정권과 북한 사회주의체제(황장엽의 표현에 의하면 '가부장적 봉건체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김정일 중심의 북한 지도부는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는 의도에서 김일성 사후 3년이란 긴 시간을 애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왕조시대이나 가능할 '만 3년

상' 을 치르면서 죽은 아버지의 권위를 빌어 '유훈 통치' 를 지속하면서 군부 주도의 과도 기적 '위기관리체제' 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기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체제 안정성의 근거를 북한 지배층의 김정일과의 운명공동체 의식에서 찾아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난의 심화와 황장엽 비서의 망명, 북한 지도부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설, 외교부와 군부의 갈등설 등을 접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 요인으로 고려했던 지도부의 결속 문제가 점차 불안정 요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정치 과정의 은밀성과 '비밀 정치' 의 속성 등으로 북한 권력 집단의 응집력과 갈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 알려진 군부와 외교

1) 황장엽은 귀순 결심을 밝힌 서신에서 "남북 대립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봉건주의의 대립이다. 지금 북은 사회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인민,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이 굶어죽는 사회가 어떻게 사회주의 사회로 될 수 있는가. 구소련식 사회주의도 독재기 심했지만 세습적 1인 독재는 없었다" ("중앙일보"(1997. 2.14))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비밀 논문 「조선문제」에서 황장엽은 "북측은 민족주의 간판과 사회주의 간판도 걸지만 민족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며 철저한 개인 독재라는 점에서 봉건전제주의의 현대판이라고 볼 수 있다. 군국주의와 개인 독재가 북측의 기본적 특징이다" ("조선일보"(1997. 4.22))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사회주의체제가 아닌 '가부장적 봉건체제' 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 권력 집단의 결속 요인은 첫째,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과도 사회'인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 원리와 통치체계의 특성상 권력 집단 내에 파벌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오랜 기간에 걸친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 기반 세력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권력 집단의 결속은 높다는 것이다.

부의 갈등실과 반김정일 군부 쿠데타설 등도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형성 과정에 비추어본 권력 내부의 결속 요인과 현재의 위기 해소와 관련한 갈등 요인 등을 중심으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여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권력 집단의 결속 요인

김정일 권력 집단의 응집력은 '파벌 금지'를 철칙으로 삼는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징, 오랜 기간에 걸친 후계체제의 구축,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집권층의 운명공동체 의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과도 사회'인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 원리와 통치체계의 특성상 권력 집단 내

에 파벌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단일한 지배 정당인 공산당에 의해서 배타적인 상황에서 통치되기 때문에 권력 분립

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²⁾라는 조직 운영 원리에 의해서 당과 국가가 움직이고 당내에 '파벌 금지'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의 권력 내부에는 갈등 요인보다는 결속 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³⁾

둘째, 오랜 기간에 걸친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 기반 세력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권력 집단의 결속은 높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권력 교체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 투쟁과 전임 지도자에 대한 격하 등을 목격하면서, 그의 아들인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후계체제 구축 작업을 서둘러 시행했다. 김부자는 60년대 말 또는 70년대 초부터 약 30여 년간 후계체제를 준비하면서 유일사상체제와 김일

2) 민주주의중앙집권제(민주집중제)는 레닌에 의해 제시된 당 조직 지능 원리이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민주적 요소와 집권적 요소를 합친 당 조직의 지도 원리로서, 당원들은 정책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토론이 고무되다가 일단 투표가 행해진 다음에는 결성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쟁이 금지된다는 원리이다.

3) 그러나 정치 과정의 비민주성과 절차의 부재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교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장치들 마련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 권력의 유고시 권력 투쟁과 정치 불안정은 상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성·김정일유일지도체제(‘유일체제’ 또는 ‘수령제’)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권력 집단 내에 이른바 ‘종파 분자’ 또는 ‘파벌’이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북한 권력 집단 내에서는 김정일지도체제 형성에 반대했던 인물들이 대거 숙청되었다.⁴⁾ 1980년 10월 6차당대회를 계기로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김정일은 혁명1세대의 사망으로 공석이된 당·정·군의 주요 직책에 그의 측근 인물과 전문 기술 관료 중심의 혁명2세대를 대거 등용하였다. 그리고 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후원 아래 영향력을 증대시켜왔다. 80년대부터 김정일은 군부의 원로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형성했다. 그리고 1990년에 들어오면서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권력 승계 작업을 추진하였다. 1990년 5월에 신설된 국방위원회 제1부 위원장에 올랐던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데 이어, 1992년 4월 20일 원수 칭호 부여, 1993

그러나 후계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유일체제(수령제)는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과 집권 세력의 결속에 초점을 맞춘 유일체제의 구축은 체제 경직성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북한에서 후계체제의 조기 구축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권력 내부의 갈등 소지를 없애버렸다.

년 4월 9일 국방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군통수권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해왔다. 김정일은 김일성 생전에 이미 제도적으로도 군을 장악하고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급사 이후 혼란없이 자연스럽게 권력을 장악하고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공식적인 권력 승계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도 공식적인 권력 승계를 ‘형식’의 문제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후계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유일체제(수령제)는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과 집권 세력의 결속에 초점을 맞춘 유일체제의 구축은 체제 경직성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민주주의적 요소는 축소되고 중앙 집권적 요소

4) 이 시기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실각한 인물은 국가부주석 김동규, 대남 정책 담당자인 당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유장식, 비서 김종린, 그리고 군 관계자로는 인민군 총정치국장 이용무, 인민군 제1부총참모장 김철만,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익현, 당 조직 담당자로는 당 조직부장 박수동 및 비서·정치위원회 위원 한익수 등이다. 김정일지도체제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갈등에 대해서는 스키 미사유키, 유영구 옮김(1994),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중앙일보사, pp. 133~140 참조.

셋째, 김정일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장악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권력 내부의 결속과 사회 통합을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에 권력 내부의 높은 응집력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넷째, 집권층이 김정일과의 강한 운명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 집단 내의 응집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 강화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개 토론은 자취를 감추었고, 당내 민주주의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북한에서의 후계체제의 조기 구축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권력 내부의 갈등 소지를 없애버렸다.

셋째, 김정일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장악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권력 내부의 결속과 사회 통합을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에 권력 내부의 높은 응집력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일사상체계(‘주체사상의 일색화’)를 형성하기 위해 주체사상과 관련한 논문·담화를 다수 발표하였다. 그리고 구소련에서 체제 개혁이 시작되던 시기인 1986년 7월 15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

시하고 체제 결속에 주력해왔다.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당·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는 명제를 제시하였

다. 북한의 사상 이론가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특성과 그 생명력의 원천은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일심동체를 이루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나가는 혼연 일체의 관계에 있다.⁵⁾ 이러한 북한의 통치 논리에 비추어볼 때, 권력 집단 내부는 물론 인민 대중들이 김정일의 권력과 노선에 불만을 표출하여 갈등을 유발할 경우 ‘반당·반혁명 분자’로 낙인찍혀 숙청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일의 지도 노선에 도전할 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집권층이 김정일과의 강한 운명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 집단 내의 응집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북한 지도부는 내부 갈등을 ‘적전분열’로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체제가 붕괴될 경우 그들은 기존의 특권적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김정일과 운명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 김학봉(1987. 12), “수령·당·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 「근로지」, p. 14.

이상에서 제시한 권력 집단의 결속 요인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김정일 정권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 정권의 장기 생존 가능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 집단의 갈등 요인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권력 집단의 갈등은 '리더십의 위기(the crisis of leadership)'로부터 나온다. 리더십의 위기는 혁명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노쇠해지거나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이든 지도자로부터 새로운 지도부로의 권력 이양 과정에서 나타나는 파벌간의 권력 투쟁, 군부의 정치 개입, 사적인 야심의 표출 등이 정권을 분열시킨다. 권력 이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라도 새로운 지도자 혹은 새로운 승계 세대가 장기적으로 정권의 이완을 막고 정권 수립자들과 같은 강인함과 카리스마, 그리고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의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⁶⁾

김일성 사망 직후 북한 지도부는 절대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인

당의 권력 독점과 부패, 국가 기관의 무책임과 무능, 계속된 수해, 체제와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량난,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원로 혁명 지도부의 고령화와 영향력 감소, 세대차와 세대간의 갈등, 그리고 당료(red)와 전문 기술 관료(expert)의 갈등 등으로 북한에서 김정일의 리더십은 김일성의 리더십에 비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 대중들의 심리적 아노미(anomie) 상태를 막고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를 제출하고 유훈 통치를 지속하면서, "수령은 곧 우리 당이고 우리 당은 곧 김일성 동지" 등식을 내세우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조선노동당을 동일시하면서 김정일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권력 독점과 부패, 국가 기관의 무책임과 무능, 계속된 수해, 체제와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량난, 사회주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원로 혁명 지도부의 고령화와 영향력 감소, 세대차와 세대간의 갈등, 그리고 당료(red)와 전문 기술 관료(expert)의 갈등 등으로 북한에서 김정일의 리더십은 김일성의 리더십에 비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처한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3년간 공식 권력 승계를 뒤로 미루고, 군부 중심의 '준전시적 위기 관리체제' 즉,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강압

6) Howard J. Wiarda(1994, 5, 27~28), "The Future of Marxist-Leninist Regime: Cuba in Comparative Perspective," 한국국제정치학회와 민족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 논문, 서울.

김정일이 군부에 대한 우대와 신뢰를 보이는 반면 당 조직과 당 일꾼들에 대해서는 불신을 갖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김일성 사후 북한은 군부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김정일이 공식 승계를 뒤로 미루고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 등의 직책으로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정치 개입과 노선 갈등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정책을 통해서 '난국' 극복을 꾀하고 있다. 김정일은 당 총비서와 국가 주석을 공석으로 둔 채⁷⁾ 국방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책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군을 체제와 정권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간주하고 군부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비밀 연설문에 의하면, 김정일은 인민군에 대해서는 "군인들의 사상 정신 상태가 매우 좋다"고 하면서 강한 신뢰를 보인 반면, "당 조직들과 당 중앙위원들은 맥을 못추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현재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조성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시인한 바 있다.

"지금 인민들이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권위때문이지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이 일을 잘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당 안에 반당반혁

명 종파분자들은 없지만, 당 조직들이 맥을 못추고 당 사업이 잘되지 않다보니 사회주의 건설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⁸⁾

김정일이 군부에 대한 우대와 신뢰를 보이는 반면 당 조직과 당 일꾼들에 대해서는 불신을 갖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김일성 사후 북한은 군부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김정일이 공식 승계를 뒤로 미루고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 등의 직책으로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정치 개입과 노선 갈등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군부가 일부 행정·사법 업무까지 관장하는 등 대민 분야에 군부의 감독·통제가 부쩍 강화되는 등 군부의 정치 개입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

그리고 외부 세계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군부간의 노선 갈등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다. 북한은 1995년 1월 20일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군부내

7) 1997년 6월 현재 청무원총리, 인민무력부장 등도 공석으로 되어 있어, 북한의 당·정·군의 주요 직책이 공석이 비정상적인 '과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8) 『월간 조선』(1997. 4), p. 308.

9) 『중앙일보』(1996. 3.18).

강경파의 주장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외부 구호 가구들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정부와 군부간의 정책 갈등을 이해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군부가 원조를 거부한 것은 국제 기구

종사자들이 현장 답사를 위해 북한 곳곳을 다니는 데 따른 안보적 이유와 국제적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대외 교섭 과정에서 군부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은연 중에 흘림으로써 대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이득을 챙기려 한다. 또한 군부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침으로써, 군부의 전쟁 불사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효과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정일 권력 집단의 갈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일이 비밀 연설에서 “나의 사업을 똑똑히 도와주는 일꾼이 없습니다. 나는 단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¹⁰⁾라고 탄식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일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의 영도성과 권력 독점을 보장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정일 권력 집단의 갈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체제 위기가 지속될 경우 김정일 권력 집단 내의 노선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이 처한 위기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난관’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이다.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위기를 해결할 전망은 거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노선을 수정하여 새로운 발전 노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권력 집단 내부의 이익이 상충하여 상당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에서 당 조직과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이 김정일이 추진하는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위기 징후이다.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있다는 것은, 계속된 희생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인민 생활 등으로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 지도체제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1980년 6차당대회 이후 17년 동안 당대회를 열지 않은 관계로 당 중앙위원들이 고령화하여, 김정일의 표현처럼 중앙당이 ‘노인당’, ‘송장당’으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공식 승계할 경우 7차당대회를 열고 권력 엘리트의 대대적인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혁명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혁명 원로 세대들이 대부분 사망하여 자연스런 세대

10) 「월간 조선」(1997. 4), p. 316.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본격 추진될 경우 근대화 과정에는 학자, 기업인, 관리자, 전문직 엘리트 등 새롭고 다양한 엘리트들이 나타나며, 이들은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당료(red)'와 '전문 기술 관료(expert)'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체제 위기가 지속될 경우 김정일 권력 집단 내의 노선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이 처한 위기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난관'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이다.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위기를 해결할 전망은 거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노선을 수정하여 새로운 발전 노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권력 집단 내부의 이익이 상충하여 상당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¹¹⁾ 그리고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 사회도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근대화 과정에는 학자, 기업인, 관리자, 전문직 엘리트 등 새롭고 다양한 엘리트

들이 나타나며, 이들은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당료(red)'와

'전문 기술 관료(expert)'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¹²⁾

김일성 사후 3년 동안 김정일 중심의 북한 지도부는 체제 개혁 등의 새로운 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인질'로 하여 전쟁 불사 위협 등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체제 결속과 정권 유지에 급급해왔다. 국가가 '호주'로서 인민들의 의식주를 책임진다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이상'은 국제 사회로부터의 식량 구걸이란 '현실'로 바뀌어 나타났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도 개방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개방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지나친 우려때문에, 개방 지역을 극히 제한하고 개방 속도를 늦추

11) 북한의 권력 구조가 외형적으로는 김정일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 집권적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북한 지도부는 구성원간의 현격한 정책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견해들이 나타나면서, 북한 정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익 집단 정치(interest group politics)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ruce Bueno de Mesquita·모종린(1997), "북한의 경제 개혁과 김정일 정권의 내구력 분석", 「통일연구」 창간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pp. 49~68.

12) 구소련과 중국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엘리트들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Gilbert Rozman(1990), "Shades of Excellence: The Communist Party and Elites 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Mel Gurtov(cd.), *The Transformation of Socialism: Perestroika and Reform in the Soviet Union and China*, Boulder: Westview Press, pp. 155~177 참조.

면서 '붉은기 사상'을 제시하고, 사상전과 속도전 등의 '혁명적 군인 정신'과 '고난의 행군 정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희생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부자체제의 모순에서 유래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계층은 지식 계층이며, 체제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군부가 위기 해결의 전면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다.

황장엽 비서가 망명이란 극단적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도 개혁·개방과 관련한 북한 지도부의 노선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황장엽은 자본가와 자본주의의 진보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을 추종한 '온건 개혁파'이다. 그러나 김정일 주변의 '강경파'는 개혁·개방이 김정일 정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개혁·개방을 주저하면서, '붉은기 사상'과 '고난의 행군 정신'만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반복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황장엽이 망명을 결심한 것도 북한체제의 위기 탈출과 관련한 노선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장엽은 북한이 생존하려면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 반면, 김정일 주변의 '강경파'는 경제난의 해결보다 김정일 정권의 안

김부자체제의 모순에서 유래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계층은 지식 계층이며, 북한이 생존하려면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 반면, 김정일 주변의 '강경파'는 경제난의 해결보다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개혁·개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개혁·개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황장엽은 김정일의 통치 행태로 미루어볼 때 북한의 장래가 매우 어둡다고 보고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황장엽은 김정일이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왜곡하여 김일성·김정일유일사상체제와 김부자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북한의 피폐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황장엽은 김정일 정권의 통치 행태로 보아 앞으로도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황장엽을 비롯한 북한의 많은 지식인들은 후계체제의 부당성과 1인 전제 정치와 개인 숭배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근로 인테리(지식 계층)들의 불만은 점차 높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군부의 동향은 절대적인 것이다. 현재까지는 김정일 정권이 군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불안정 속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군부의 동향은 절대적인 것이다. 현재까지는 김정일 정권이 군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불안정 속에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왔다. 많은 관측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식량난 등의 경제난이 계속될 경우, 반김정일파에 의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김정일 암살이나 내란으로 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에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현재의 난국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군부의 본격적인 정치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다. 많은 관측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식량난 등의 경제난이 계속될 경우, 반김정일파에 의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김정일 암살이나 내란으로 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한 미군이 밝힌 「북한 하부 구조 붕괴 유형」이라는 보고서는 전쟁 발발 가능성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붕괴가 ① 식량 등 자원 고갈 단계로부터 시작돼(식량·전력 자원 고갈), ② 대상을 선별해 자원을 공급하는 차별화 단계(군에 배급 우선 순위), ③ 생존을 위협받음에 따라 각 지역별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지역 독립 단계(통제력 상실 지방 독립), ④ 중앙정부의 억압 단계(공개 처형 내부 탄압), ⑤ 저항 단계(관리 암살 하부 저항), ⑥ 폭력을 수반한 균열 단계(권력층 분열 숙청 사태), ⑦ 권력 재편 단계(체제 존속을 위한 재정렬) 등의 7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3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¹³⁾ 주한 미군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장래를 내부 폭발(implosion), 외부 폭발(explosion), 연착

륙(soft landing) 등 세 가지로 상정해 놓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폭발은 권력 승계를 둘러싼 위기 속에서 쿠데타나 혁명, 경제 붕괴 등으로 가능하며, 외부 폭발은 전쟁이나 경고 공격 등 우발적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연착륙은 북한이 국제 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고 한국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위의 시나리오 가운데 6단계에 이르면 북한 권력 엘리트 핵심간의 대결 속에 고위 관리 저형과 숙청, 軍政, 군의 내분 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와 같은 체제 위기가 가중될 경우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군부가 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체제 위기가 계속될 경우, 그동안 김정일 정권의 안정 요인으로 고려해왔던 김정일 권력 집단 내부의 결속 요인은 점차 균열과 갈등 요인으로 轉化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3) 「조선일보」(1996. 3.25), 「동아일보」(1997. 6.28).

맺음말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력갱생의 원칙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은

개혁·개방에 앞서 김일성과 주체사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일 스스로 과거에 그가 추진했던 노선과 정책을 부정해야 한다. 그러나 김일성과 주체사상은 김정일 정권의 존립 근거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 당국이 지난 3년간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효심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대 착오적인 '유혼 통치'를 지속하면서 허송 세월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일 정권은 획기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

북한이 처한 현재의 경제 위기가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때, 경제 회생을 위한 대외 개방 정책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개방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체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혁·개방의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 지체(time-lag)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김정일 중심의 북한 지도부가 공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력갱생의 원칙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은 개혁·개방에 앞서 김일성과 주체사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일 스스로 과거에 그가 추진했던 노선과 정책을 부정해야 한다. 그러나 김일성과 주체사상은 김정일 정권의 존립 근거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정일 정권은 획기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

식 승계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 않고 '유혼 통치'를 지속할 경우 경제 위기는 정치 위기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 위기의 해결과 관련하여 권력 집단 내부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나타난 김정일 권력 집단의 결속 요인은 결국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여 김정일 권력 집단의 균열과 붕괴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完**